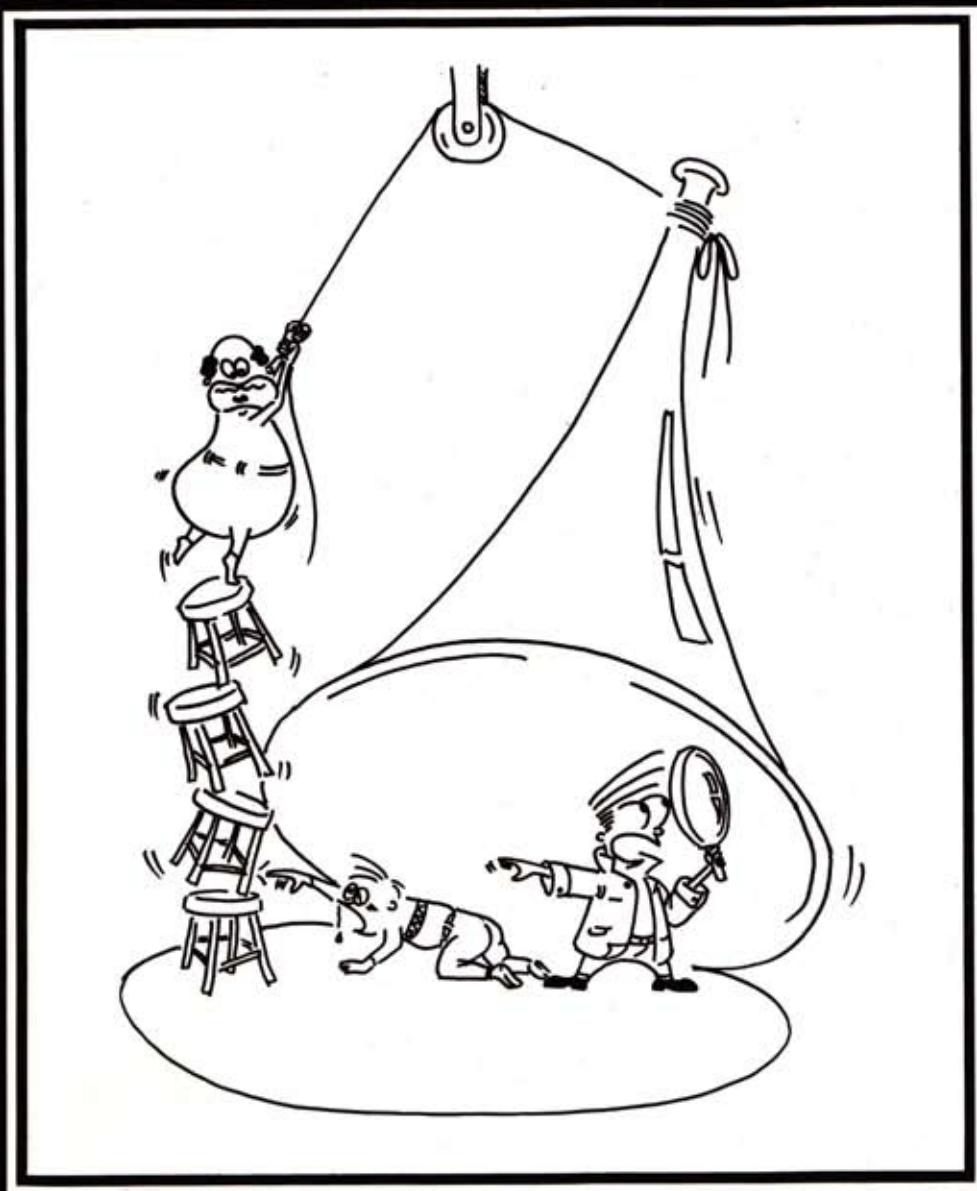


승대극회 제46회 봄 정기공연

우린 나발을 불었다.



작 : 김상렬 기획 : 임경화
연출 : 홍은영 정현용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모시는 글



극회장 양 현 준

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삶의 질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안에 간혀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로부터의 간힘과 혼란을 애써 일으키고 지낸 지난 겨울의 시간들. 낮과 밤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는 무능력과 자탄지괴에 빠진 인간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우리들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생각했다. 기다란 숙명의 끈과 책임이 부과되어진 우리들의 시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느낌으로 다가 왔을때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관객여러분과 선배님들을 지금 여기 이시간의 흐름속에 뚜렷한 존재의 발견을 위하여
초대합니다.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비에로

TEL: 812-5768 • 숭실대

멋진 공간을 약속드립니다!
DEUTSCHE BOOF
☎ 817-0821



후문 숭실대 정문



승실대정문
ADOMFLAIA
TEL: 824-4657

당구의 묘미를 즐기시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상아당구장**

☎ 815-0563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공 축 연

승대극회 46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숭실극회 동문회 일동



임경화(화학87)

사실 우린 솔직하다는 것에 대한 미덕을 알지 못한다.
끌없는 자기착각과 대화의 대상을 무작위적으로 찾고 있다.
얼마나 허망한 노릇인가?



정현용(법학87)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
계속되는 불안감과 자기학대.

아무도 들어줄리 없고 말할수 없는 느낌들.
내면화에도 실패하고 외적인 답답함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번 공연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신 선배님들과 스탭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더불어 연출과 cast 를 맡은 여러분
에게 눈물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감독
권형진 (무역 86)



무대미술
송근호 (기계 87)



무대장치
남재우 (전자 90)



조명
소장호 (전산 88)



음향
이경희 (신공 89)



분장
판숙경 (시사 89)



소품
이종윤 (법학 89)



의상
채경희 (통계 89)



설외
진상범 (전기 89)



진행
손진웅 (신공 87)



홍보 I
이기택 (시사 90)



홍보 II
이선화 (회계 90)

연회석완비 한식전문
두/메/골
승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승실대
TEL. 813-3655

로얄BOX
지성인들의 휴식처!
후문
승실대 정문
TEL: 812-2455

모든 사진은
23분 칼라현상소
상업은행
TEL: 813-2708
(승실대무역학과)

공연을 축하합니다.
승실대학교
구내서점

연출의 변



홍은영 (법학 89)

하늘만큼 짙어졌던 내 스스로의 표정이 점점 투명한
어둠속으로 묻혀만 가는데...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며
이제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내 땀과 집념이 키워온 테두리속에 그대를 가두어 놓고
공연스레 갈등하고 고뇌만 하다가 그것이 괴로워
웃고 떠들며 그대를 병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대를 생각하며 영원히 당신의 나일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결코 길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난 겨울 이야기를 위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갈 남은 날을 위해
뜨거운 미소를 보냅니다.

지나치게 과시해온 내 젊음속에 마음 졸이신
부모님과 많은 힘을 안겨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연극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 분 식

TEL. 816-9835



백/마/당/구/장

최신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공연을 축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승실대학교 안경부
실로암안경원
교내) 820-0884
TEL. 826-7875

고풍스러운 분위기
학사주점

지하 •
승실대정문

옛촌

TEL. 813-6235

무대에 간한 사람들



주리
장윤정 (법학 89)

온통 발가벗기워지는 듯한
무대위에서의
끝없는 고독,
죽고 싶을 만큼
주리가 되고
싶었지만.....



멍석
양현준 (법학 90)

난 정말
길고 평안한 잠을
자고 싶어요.



보화
김문희 (통계 90)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인가?
돈으로만 세상사는건
아니라던데
돈 없으면 사랑도 할 수없는
이놈의 세상은...



공회장
한석운 (기계 91)

그곳 들여다 보아도
난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그들 여기
나올수 없지만...



김소희 (독문 91)

난 나자신을
버릴 수 없기에
난 나일수 밖에 없기에
난 너무나 힘들다.



맷돌
이충희 (전기 91)

나의 불투명한 유리창은
언제나 뾰얀 먼지속에
쌓여있지만,
다른 사람의 창을
닦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여!



관우
김상겸 (전자 91)

자신을 깨기는
너무 힘들다.
나는 남들과 어울렸지만
항상
혼자일수밖에 없다.



관리인
김은성 (정보 92)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며
생활하기를...

작가 및 작품연구

작가에 대하여

1941년 서울태생, 중앙대 연극영화과 졸업, 극단 「가교」 「현대」 상임연출을 맡았었고 현재 연극 연출가 협회와 뮤지컬 협회 부회장 역임.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소재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을 반영하는 작품을 썼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변혁을 주제로 사물의 생성 변화를 다양성이 돋보이도록 다큐멘터리극, 반사실주의극, 수사극, 열린형식의 극으로 표현했고 특히 그는 관객을 인식하여 대부분 기존의 연극이 배우가 작품을 완전히 소화해 그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이해시키려는 사고에서 탈피,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주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대의 변화는 연극의 변천을 가져온다고 보고 부정과 역전, 아이러니등을 통해 반사회적인 면을 많이 나타냈다.

주요 작품으로는 「언챙이 곡마단」 「애니깽」 「등신과 머저리」 「종이연」 등이 있다.

작품 분석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노래와 춤의 도입등을 피해 사실주의 보편성을 무너뜨리고자 했고 시간 공간성의 이동과 파괴를 통해 반사실성을 극에 이용하였다.

몇 가지의 유형화된 인물들, (바보스런 서민, 이중인격자, 물질 만능주의 인간)을 이용하여 줄거리를 꾸며 나갔고, 익살스런 배우들의 동작이나 대사등이 보여줄 거리를 제공한다. 사실주의 작품의 토대위에 희극적 수법을 이용한 사회 희극으로서의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보다 강한 절망을 체험하게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명석과 맷돌이라는 두 청년이 시장바닥에서 물건을 팔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깜방 의형제였던 관우가 출감해 맷돌을 찾아온다. 관우는 공회장이란 자의 저택 환기창에 금괴가 있다고 이들을 유혹한다. 명석과 맷돌은 서로 갈등하지만 부당하게 착취당한 자신들의 뜻을 찾기 위해 공회장의 저택 환기창에 침입하다 그만 맷돌이 못에 찔리게 된다. 명석과 관우는 다시 작전을 짜기 위해 그 집 딸인 주리를 이용. 명석은 맷돌을 살려내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주리에게 진실을 보여준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맷돌은 우연히 히로뽕을 발견하고 관우가 그들을 속였음을 깨닫는다. 관우는 히로뽕 사진을 손에 넣고 그것을 미끼로 공회장과 타협한다. 명석과 노파의 암시를 통해 주리는 맷돌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과 공회장 부부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나아가 현 시대의 독선과 잔인함을 허트러진 춤과 노래로 전하며 끝을 맺게 된다.

『우린 나발을 불었다』는 작전의 암호명으로 마치 구호처럼 퍼지는 도구적 언어이다. 되풀이 되는 “나발”은 웃음뒤에 가려진 어둠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모순을 희극화시킨 비극적 comedy의 형식인 이 작품은 새로운 형식의 장르를 창출한 점에서 충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준다.

이 시대의 꼭두각시로 변절해서 지배계층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관우는 대표적인 이중인격자이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속에 가려진 공회장 부부는 분명 썩어빠진 권력층을 대변하는 인물일 것이다.

안일한 무질서함속에 나타해지는 우리를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지금의 추세라 할 때 반 사회성이 강한 이 극은 분명 의미심장한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를 말이다.

단 한번의 공연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오만함은 없습니다.

단지 무언가에 미쳐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서
꿈을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승대극회 가족 일동.—



연습일지

- 1月 ○ 日 / 남자배역 결정. 오늘 술 먹고 또 뒤집어지겠군.
여자들! 빨리 춤춰봐. 할머니가 되느냐, 아가씨가 되느냐, 아줌마가 되느냐,
젊어지고 싶지 않아?
- 1月 △ 日 / 끔찍한 Body training.
“식식, 이파 넘어뜨릴때 보자”, 모두 절뚝거리고 다님.
- 1月 □ 日 / 아~! 즉흥연기, 세상에 네발로 꺽꺽거리며 기어다니라니!
연출 曰, “야! 그거 개나? 돼지나?”
- 1月 X 日 / 90학번 여자 cast. 스트레스 쌓인다고 기합소리만으로 유리창 깬.
그 동기 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가시내”
- 1月 △ 日 / “목소리 크게 못해! 너 오른쪽으로 빠지랬잖아.”
아휴, 내 손, 내 다리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 2月 ○ 日 / “아, 저… 그 죄송해요. 대본한번만 보고 할께요”
어? 뒤통수 한대 맞고 나니까 눈이 안보이네. 시신경 죽어버린거 아냐?
“야! 니 안경알 마루틈에 빠졌어.”
- 2月 X 日 / “야! 나네들 할때마다 대사투 똑같이 할래? 말투가 아주 고정되었잖아.”
아! 추워, 아! 배고파, 우동이 되어버린 라면을 아시나요?
- 2月 △ 日 / “다들 지겨워? 모두 표정이 왜그래? 한파끼리 하고 싶어?”
아! M·T나 갔음 좋겠다.
- 2月 □ 日 / 밤차로 강릉행 M·T(기획형이 들었나?)
열차에 혼들리며 서서(입석이었음) 서로 눈튀어나오게 패는 일로 지새움.
누구누구는 물귀신될 뻔하고, 누구는 No 팬티라나? 젖은 팬티라나?
- 2月 △ 日 / 아악 ~. 내다리. 너 그몸으로 깔고 앉냐?
맷돌 曰, “이거 일어나기 싫은다.”
멍석 다음날부터 전파되어 절뚝거림. (실제 상황임)
- 2月 ○ 日 / Detail
관우 曰, “명석형, 감정이 잘 안나오는데 뒤통수치는 장면만 집중 연습합시다.”
그날 이후 관우 얼굴에는 피멍자욱이 떠나지 않음.
- 3月 X 日 / 무대 setting.
야! 그거 내 손가락이야. 못 박지마!
- 이거 완전히 빈민촌 판자집 같지 않니? 아니 회장실(실수), 화장실분위긴데.
- 3月 □ 日 / 금주·금연령이 내려짐
남자 cast들 모두 올상인데 관우만 싱글벙글. “난 담배피우는 장면 연습해야 지.”
- 3月 ○ 日 / 씨끌벅적, 와글와글, 후루룩 쩍쩝(라면 먹는 소리)
어수선한가운데서도 서로간에 끈끈히 피어오르는 정과 빛나는 눈동자에서 공연
이 다가왔음을 모두 느낄 수 있음.

축

공연

참된 연극인이 되시길 바라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승대극회 제46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의 단결의 구심 !!!

-민족승설 동아리 연합회-

Hof & 학사주점(정통 동동주)

만남의 광장

TEL:814-9116

• 중실대

푸른화원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TEL:817-5549



Hof & Restarrant

하이덴(구 李家)

TEL:812-0197

2층

• 중실대 정문

벤엘 고시원

최신의 설비,
쾌적한 환경

TEL:817-0985



TEL:812-4360

지하

• 중실대

△BY BOX!
WE MAKE DESIGN

TEL:823-9847



제임스·딘

TEL:812-4896



• 중실대

올림픽 당구장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TEL:816-1594



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종회소인국 "질례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침"			21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미국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김년 후" "기제연단" 범행청년회 주관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석 作	이정일	황정순
	1923년 7·28, 29	"소인현국" 교육봉후원회 주관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마인 클라크 作	염세범	박양민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풍행식 作	이반	전진호	24	1981년 11·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황정순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5	1981년 11·12, 13, 14	"달빛이 물" 김병중 作	전식근	황정순
3	1969년 10·10	"의자들" 이호네스코 作		이태주	26	1982년 5·12, 13	"끼리글라" A. 캐워 作	염태술	지숙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27	1982년 10·7, 8	"해도우 봄스" M. 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황정순
5	1970년 5·15	"활터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전희식	김영덕
6	1970년 10·28, 29	"승무의 跡來" 시무엘 베켓 作		김양기	29	1983년 10·7, 8	"트레비" John Bowen 作	이원우	오정열
7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作	이종규	오세환
8	1971년 11·4, 5, 11	"전남목 살포" 춘조병 作		주정서	31	1984년 10·11, 12, 13	"엔센조" John Stoltenberg 作	차세훈	이종설
9	1972년 5·25, 26, 27	"생일파티" H. 펀더 作		한영재	32	1985년 5·9, 10, 11	"민يل꼴"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10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보인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초반니·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11	1973년 10·25, 26, 27	"방" H. 펀더 作		김득남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해퍼 作	허성우	하승민
12	1974년 5·25, 26, 30	"기도" (소극장) F. 아라발 作		차현재	35	1986년 9·11, 12, 13	"코발소" F. 이오네스코 作	한상준	송기범
13	1975년 6·9, 10, 12, 13	"제우스의 산책" "도스토옙스끼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36	1987년 6·3, 4, 5	"한예롭밤의 꿈" W. Shakespeare	전형진	오정열
14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법" Max, Frisch 作		김기열	37	1987년 9·10, 12, 13	"오데" A. Camus	오정열	박경근
15	1976년 6·1, 2, 3	"언터루" 창 글로드 반 이렐리 作		김득남	38	1988년 6·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 作	이충일	오정열
16	1976년 10·25, 26, 27, 28	"행" 창 글로드 반 이렐리 作		김영덕	39	1988년 10·6, 7, 8	"안네씨, 끝내줘!" Dario Fo 作	원세우	송근호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해퍼 作	백정식		40	1989년 5·25, 26, 27	"놓내" 윤조병 作	천승범	안선호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해퍼 作		김영철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오경열	이반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김영철	42	1990년 5·24, 25, 26	"안타고네" 창 아우리 作	원세우	이준석
20	1978년 10·24	"EQUUS" (과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해퍼 作		김승기	43	1990년 8·30 9·1, 2	"한비연대기" 황석영 作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 펀더 作	남재우	전승해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作	향현준	전형진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암마와 풀" W. Arning 作		김홍수	9	1985년 7·20	"ARIA DA CAPO" E. St. V. Miller 作	이영민	하승민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김득남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일센 作	이길영	김정은 허성진
3	1977년 3·16, 17, 18	"출발" 음대상 作	전경호	안홍순	11	1987년 3·12, 13, 14	"여러운 손" J.P. 사르트르 作	백윤현	박경근
4	1979년 3·29, 30	"벗" 이강백 作	현철	정재호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기" 이현화 作	천승범	황금실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er 作	이영환	오세환	13	1989년 3·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	홍덕태	박경근
6	1982년 3·24, 25	"황금빛 죄는 당나귀 죄" 김용락 作	최시영	이충섭	14	1990년 3·8 9·10	"우울증 환자" Botho Straub	이영민	박혜숙 안상준
7	1983년 4·16	"블랙모에디" 피터 해퍼 作	전희식	홍여식	15	1991년 3·7, 8, 9	"노크x크" 줄스파이퍼 作	정현용	이영준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作	차세훈	김민보					